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의 선교사역이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에 미친 영향 연구

이형진(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초록

로제타 셔우드 홀(Losetta Sherwood Hall)은 1890년 한국에 와서 44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으며, 주로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교육, 의료사역에 매진하였다.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화된 특수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직업 개발 등 시각장애인 복지의 선구자·개척자·실천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홀의 시각장애인 복지에 대한 업적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과소평가 되어 왔으며, 기존 연구들은 기독교 선교적 관점과 특수교육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로제타 홀의 선교사역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복지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로제타 홀은 왜 기독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장애인복지 특히 시각장애인 복지사역을 하였는지? 로제타 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을 천대하고 무시하던 당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시각장애인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각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참여(social integration)’에 기여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최초의 한글 점자를 개발하고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대화 교육의 장을 열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직업개발, 취업활동 등을 지원함으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복지의 선구자가 되었다.

주제어 : 로제타 셔우드 홀,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I. 서 론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전개한 선교사역은 복음선교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문명개화 및 사회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선교사들은 서구의 선진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낙후된 조선에 근대적이고 문명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주윤정, 2008: 149). 로제타 셔우드 홀(Losetta Sherwood Hall)은 미국 북감리교회 여성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소속으로 1890년 10월 14일 한국에 왔다. 당시 조선의 의료 복지 상황은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제타 셔우드 홀은 한국에서 44년간 선교사역을 하면서 여성전용병원 2개, 여자의학강습소 2개, 소아과병원 2개, 간호학교 2개, 결핵병원 1개(아들 셔우드와 함께)를 세우고, 맹아학교와 농아학교 각 1개, 고등학교 1개(남편 윌리엄과 함께), 초등학교 1개를 건립하는 등의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김홍권, 2002: 645).

로제타 홀의 선교사역은 주로 의료선교와 장애인과 관련된 사역이었으며, 그녀가 최초로 시작한 장애인 관련 사역은 시각장애인 사역이었다. 한글 점자 개발, 미국 유학 여의사 및 맹아 특수교사 배출, 맹인 영문과 졸업생 배출, 제1회 동양 맹학교 회의 개최 등도 그녀가 이룬 성과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점쟁이나 무당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도 부모들이 돈이 있어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가능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구걸하거나 소외되어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해 결국은 보행 능력까지도 잃게 되기도 했다(셔우드 홀, 2003: 158-159).

조선왕조가 약 500년 동안, 새로운 서구 문화가 접목되기 전까지는 조선왕조 이전의 불교 문화와 조선왕조의 유교 문화, 그리고 전통적인 샤머니즘 문화가 융합되어 있었으며, 장애를 보는 인식도 불교, 유교, 샤머니즘의 이해가 섞여 있었다.

오랜 기간 큰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식에 기독교 서구문화의 새로운 관점을 접목한 사람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하 로제타 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선교, 장애인 특수교육, 장애인 복지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목했다고 할 수 있다.

로제타 홀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부류의 관점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관점은 기독교 선교적 관점(김홍권, 2002; 김정민, 2009)이고, 두 번째 관점은 특수교육 관점(김병하, 1986; 탁지일, 2011)이며, 세 번째 관점은 장애인복지적 관점(백윤희, 1986; 최영, 2005)이다. 로제타 홀의 사역을 장애인복지적 관점에서 연구한 선행연구는 한국장애인복지의 시발점으로서의 간단한 언급에 불과하다. 로제타 홀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것에 비하여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로제타 홀의 선교사역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복지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로제타 홀은 왜 기독교 선교사로 와서 장애인 복지 특히 시각장애인 복지사역을 시작했는지를 홀의 삶과 선교사역을 통해 확인하고, 로제타 홀의 시각장애인 관련 선교사역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직업과 삶의 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나아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특수교육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로제타 홀의 선교보고(The Korea Mission Field, 1905-1930)와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의 저서(닥터홀의 조선회상, 2003)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고, 로제타 홀에 대한 선행 연구들

과 로제타 홀이 언급된 특수교육, 의학, 사회복지, 역사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II. 본 론

1. 로제타 셔우드 홀의 삶

로제타 홀은 1865년 9월 19일 뉴욕 설리번 카운티의 리버티에서 로즈벨트 셔우드(Rosevelt Sherwood)와 포에비 길더슬리브 셔우드(Phiebe Gildersleeve Sherwood) 사이에서 8남매 중 7번째 딸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8명의 자녀를 돌보는 일과 농장 일로 바빴지만 자녀 교육에 열심이어서 8남매를 전부 대학을 졸업시켰다(기독신보, 1926).

로제타 홀은 리버티 노멀 인스티튜트(Liberty Normal Institute), 뉴욕 오스웨고의 스테이트 노멀 스쿨(State Normal School)에서 공부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1885년에 1년 동안 체스넛 릿지 학교(Chestnut Ridge School)에서 교편을 잡았다(셔우드, 2003: 49).

그녀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당시 그 지방을 방문했던 캐너드 첼들러(Kennard Chandler) 여사와 제임스 토번(James M. Thoburn) 감독의 부인이며 인도의 의료 선교사였던 닥터 토번 여사로부터 인도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고서였다(셔우드, 2003: 50).

로제타 홀은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Women's Medical College of Pennsylvania)을 졸업하고, 감리교 주관 사업의 하나였던 뉴욕의 빈민가 의료시료원에 파견되어 빈민의료사업에 협력하였다. 이곳에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될 닥터 홀을 만났다. 이들은 다같이 해외 선교단의 일원으로 중국으로 파견될 선교사 후보들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임지는 당초에 희망했던 중국이 아니라 비교적 새로운 선교 대상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조선이었다(셔우드, 2003: 49-52).

그녀는 1890년 8월 22일 리버티의 집을 떠나서 당해 10월 14일 조선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닥터 메타 하워드(Meta Howard)가 1888년 11월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의료기관인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의료선교사로 사역하는 한편, 스크랜턴(Scranton) 여사를 도와 이화학당(梨花學堂)에서 생리학과 약물학을 강의하였다.

한편 닥터 홀은 닥터 로제타 셔우드가 있는 조선에 오기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인 유럽인들을 진료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중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의 파송으로 1891년 12월 16일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두 사람은 1892년 6월 27일 조선에서는 처음¹⁾인 국제 결혼식을 하였다. 신부는 미국인, 신랑은 캐나다인, 주최국은 조선이었다(셔우드, 2003: 52-105). 그러나 남편 닥터 홀은 선교사역 중 발진장티푸스에 전염되어 결혼 2년5개월 만에 34세로 1894년 11월 24일 소천하였다(백낙준, 1998: 193).

1) 로제타 셔우드 홀의 사역에는 조선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조선 최초의 국제 결혼, 조선에서 최초의 서양인을 낳은 서양인 어머니, 조선 최초의 감리교 평양선교, 최초로 평양에 온 서양 여인, 조선 최초의 시각장애인 선교, 조선 최초의 점자 교육, 조선 최초의 맹학교 설립, 조선 최초의 농학교 설립 등이다.

부군(夫君)이 별세(別世)할 때 로제타 홀은 임신 7개월째였으며, 한 살된 아들과 홀 여사의 조수로 병원과 전도 사업에 성실하게 일하던 박 에스더²⁾을 데리고 뉴욕으로 돌아갔다가, 두 아이 셔우드와 에디 마가렛(Edith Margaret)을 데리고 셔우드의 네 번째 생일인 1897년 11월 10일, 다시 제물포에 도착했다(셔우드, 2003: 177-185).

로제타 홀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남편 닥터 홀을 위한 기념 병원을 설립할 기금을 조성하여 평양에 홀 기념 병원이 개원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닥터 홀의 후임으로 온 닥터 더글러스 포웰(Douglas Fowell)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셔우드 2003: 182-183).

1897년 2월 1일, 홀 기념 병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개원되었다. 이 건물은 선교회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원조도 받지 않고 친애하는 고 닥터 홀의 자기 부정(否定)과 의사인 그의 아내, 조선의 친절한 친구들, 그리고 고국 친지들의 노력으로 세워졌다.

당시 로제타 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또 하나의 숙제는 조선의 맹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다. 로제타 홀은 시각 장애 어린이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고 싶었지만 조선인들이 그녀의 의도를 곡해할 수도 있었으므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의 긴장된 상황으로는 차칫 잘못하면 1888년에 파급되었던 유언비어처럼 “의사들이 약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눈을 뽑았다”는 모함으로 이용될 수도 있었다. 홀 여사는 평양에서 남편 닥터 홀의 첫 신자가 된 오형식의 딸(오복래³⁾)이 시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이곳에서 일을 시작할 기회가 비로소 왔구나. 그 애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니 내 의도를 곡해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⁴⁾. 로제타 홀은 일기에 “나는 봉래를 가르치기 위해 조선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을 찍어 일종의 점자를 고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셔우드, 2003: 158-159). 로제타 홀은 소녀시설에 취미삼아 “뉴욕식 점자” 사용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Rosetta S. Hall, 1906⁵⁾), 이것이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조선의 맹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홀 여사는 뉴욕에 머무는 동안, ‘뉴욕 포인트’란 점자를 개발한 뉴욕 맹인 교육학원의 원장인 윌리엄 웨이트(William B. Wait)를 방문하여 점자 구조를 배웠다. 여러 점자 구조를 비교해본 그녀는 뉴욕 포인트가 조선어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셔우드 홀, 2003: 184-185).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로제타 홀에게 또 다른 슬픔이 닥쳤다. 조선에 돌아온 이듬해인 1898년 5월 23일 딸 에디스가 이질(痢疾)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당일의 기록을 일기로 남겼다.

8시 25분 열은 섭씨 41도. 숨이 가쁘다. 나는 에디스를 팔에 안고 전에 낮잠 채울 때 하던 것처럼 흔들 어렸다. 아이는 훨씬 조용히 숨을 쉰다. 만족한 것 같아 보인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스러워졌고 호흡의 간

2) 박 에스더(본명 김점동)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Wome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 현재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입학하여 서양의학을 공부한 최초의 한국인, 한국 최초의 여의사, 한국인 최초의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1900년 한국에 돌아와서 1910년 폐결핵으로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로제타 홀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동료였다.

3) 어떤 자료에는 ‘오복녀’라는 기록도 있으나, 본 고에서는 닥터홀의 「조선회상」에 따라 ‘오복래’로 한다.

4) 당시 서양 의사들이 눈을 뽑아 약을 제조하기 위해 아이들을 유괴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5) Rosetta S. Hall, ‘The Clocke Class for Blind Girls’, The Korea Mission Field, 1906, pp. 174-176.

격도 깊어졌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 작은 영혼은 그렇게 떠나갔다(서우드, 2003: 192).

로제타 홀은 딸을 잃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898년 6월 18일 평양에 여성진료소 광혜여원(廣惠女院, Women's Dispensary of Extended Grace)을 개원하였다. 또 고 에디스를 기념하여 여성진료소 바로 옆에 에디스 마거릿 기념 어린이 병동(Edith Margaret Children's Ward)을 지었다. 이 병동의 첫 용도로 로제타 홀이 가르치기 시작한 4명의 시각장애 소녀들을 위한 기숙 및 교육장소로 이용되었다(서우드 홀, 2003: 201).

로제타 홀은 평양에 다시 온 뒤, 바로 오씨의 딸 복래를 데리고 점자와 뜨개질을 가르쳤고, 뉴욕점자에 기초하여 '조선훈맹점자'⁶⁾를 만들고, 초등독본·기도문·십계명을 점역하였을 뿐 아니라(한국재활재단 편, 1996: 175), 1900년에는 다른 맹인 소녀들도 받아 달라는 청을 받아 정진여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였다(서우드 홀, 2003: 203; 김병하, 1986: 16-17).

맹여아를 위한 학교 교육이 점차 기반을 잡아감에 따라 로제타 홀은 농여아를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준비에 착수했다. 로제타 홀은 1892년 남편과 함께 신희여행차 중국 체후(Chefoo: 芝罘)에 들러 동료 선교사가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아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로제타 홀은 농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김병하, 1986: 18).

1909년 농교수법을 연수케 하기 위해 그녀는 중국 체후에 이익민을 파견했다. 이씨는 귀국시에 그 학교에서 훈련받은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홀여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농학교 교육을 시작했다(김병하, 1986: 22).

1993년 문교부에서 발간한 특수교육백서에 따르면, 로제타홀은 1925년까지 무려 26년간이나 맹아학교와 농아학교의 교장직을 수행했다(김홍권, 2002: 657).

사역 초기부터 여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애써온 로제타 홀은 1928년 9월 4일 여자의학교(Women's Medical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최초로 조선에 세워진 여성을 위한 의학교였으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로제타 홀은 남편과 딸을 한국에 묻으면서 한국에서 44년간 사역하였으며, 은퇴 후 양로원에서 85세의 나이로 소천하여 한국 양화진에 있는 남편과 딸의 묘소 옆에 묻혔다. 이곳에는 로제타 홀의 사역에 동역한 아들 닥터 서우드 홀(Sherwood Hall)과 며느리 닥터 메리안 홀(Marian Hall)도 함께 묻혀 있어 일가족 5명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다. 아들 닥터 서우드 홀은 결핵환자를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을 창안·발행하여 결핵퇴치 운동을 펼치기도 하여 우리나라 결핵환자의 대부가 되었다. 어려서 소천한 에디스를 제외한 로제타 홀 일가 4명(남편, 아들, 며느리 포함)의 한국 사역을 모두 합하면 73년에 이른다. 로제타 서우드 홀의 주요 일대기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6) 우리나라는 로제타 홀에 의해 모국어의 어법에 따른 한글 점자를 처음 가지게 되었으며, 이 한글 점자(평양식 점자라고도 함)는 박두성 선생에 의해 브레이유식 한글 점자(즉 訓盲正音)가 창안, 발표된 1926년까지(평양에서는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해서) 맹인들간에 두루 통용되어 왔다.('맹인의 등불 박두성 점자성서', 현대목회, 1984. 11., pp. 146-147)

< 표 1 > 로제타 셔우드 홀의 주요 일대기

서기	중요사항
1865. 9. 19.	로제타 셔우드 홀 출생
1889.	펜신베니아 여자의과대학 졸업
11.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과 약혼
1890. 10. 13.	조선에 도착
1891. 12. 15.	닥터 홀 부산 도착
1892. 6. 27.	닥터 홀과 결혼
1893. 11. 10.	아들 셔우드 홀 출생
1894. 5.	시각장애인 오복래 교육 시작
11. 24.	남편 닥터 홀 소천
1894. 12.	미국으로 떠남
1895. 1. 18.	딸 에디스 마거리트 출생
1897. 2. 1.	평양에 홀 기념병원 개원
11. 10.	아들, 딸과 함께 조선 도착
1898. 봄	뉴욕식 한글 점자 개발
5. 1.	4년만에 다시 평양 사역
5. 23.	딸 에디스 마거리트 소천
6. 18.	광혜여원 개원
8.	에디스 마거리트 기념 어린이병동 공사 착수
1900 1.	에디스 마거리트 어린이 병원 완공 정진여학교에 시각장애 특수학급 개설
1903	평양 맹학교 책임자로 임명
1907	정진여학교 내 시각장애 소녀들을 위한 기숙사와 교실 마련
1909	농교육 연수를 위해 이익민을 중국 체후에 파견
1928 9. 4.	여자의학교(Women's Medical Institute,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
1933 10. 2.	정년(68세)으로 은퇴하여 미국으로 돌아감
1951 4. 5.	소천(85세)

2. 로제타 셔우드 홀 이전의 한국 시각장애인의 삶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을 대개 병에 걸린 사람 곧 병신(病身)이라 불렀고, 간혹 중환자나 불구자라 부르기도 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잔질자(殘疾者), 독질자(篤疾者), 폐질자(廢疾者)라고 지칭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환과고독과 함께 잔질·독질·폐질이란 용어가 빈번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장애인을 일컫는 말이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어떤 때에는 ‘폐질’이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잔질·독질’이라고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57).

세종대왕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 전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점복·독경·악기연주 같은 직업을 갖고 스스로 먹고 살도록 유도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62). 그러므로 조선 전기의 시각장애인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점복을 배우고, 겸하여 독경을 하기도 하였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관현맹인으로 정부의 녹을 받는 관원의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관현맹인은 궁중 내연(內宴)에서 관현합주나 가무반주를 맡았던 맹인 음악인들이다. 관현맹인을 둔 가장 큰 이유는 내외법이 엄격했던 그 당시 여자들만이 있는 궁중 내연에 보는 악공들이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앞을 못 보는 맹인들로 하여금 궁중에서 연주하게 하였다. 세종 13년 관습도감사(慣習都監師) 박연의 상언에 의하면 관현맹인은 모두 외롭고 가난하여 말할 데가 없는 사람들로서 왕년에 뽑아서 관습도감에 들어온 사람이 겨우 18명 정도인데 재주가 취할 만한 사람은 4~5명에 지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처음 배워서 익숙하지 못하다고 했다(한국재활재단 편, 1996: 86).

시각장애인들에게 허용된 점복·독경·악기연주와 같은 직업들도 가족들의 지원으로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특히 대부분 남성 시각장애인에게만 허락된 경우가 많았다. 그 외 많은 시각장애인과 여성 시각장애인은 국가의 구제와 가족의 보호 속에 살아야 했다.

작가미상의 조선시대 판소리 ‘심청가’에 시각장애인의 삶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황후가 보실 적에 직업이 다 다르다 경 읽어 사는 봉사, 점하여 사는 봉사, 계집에게 얻어먹는 봉사, 아들에게 얻어먹는 봉사, 딸에게 얻어먹는 봉사, 풍각쟁이로 사는 봉사, 걸식으로 사는 봉사, ...(신재효, 1978: 244-245)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이 독경이나 점술, 풍각쟁이로 살기도 했으나, 가족의 부양으로 살거나 거리 걸식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개방적이고 열린 사회여서 장애인이 사회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자립 가능한 사람과 자립이 어려운 사람을 분류하여 나름대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로 갈수록 양반 사대부들이 지나치게 유학에 경도되어 시각 장애인의 역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배척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활동 영역을 축소시켰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퇴색하여 왕의 지시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관리들의 농간도 점점 심해졌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시각 장애인의 지위가 하락할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 서서히 그들을 비하하고 천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63-188).

로제타 홀이 한국에 온 조선말의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갖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천시와 냉대 속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거나 결식하며 생을 연명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당시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다.

홀 부인의 환자로써는 장님, 병어리, 귀머거리들이 많았다. 그 당시 조선의 장님, 병어리, 귀머거리들은 매우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 장님들은 점쟁이나 무당이 되지만 그것도 부모들이 돈이 있어서 그들을 훈련 시킬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가능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소외되어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해 결국은 보행 능력까지도 잃게 된다(셔우드 홀, 2003: 158-159).

3. 로제타 셔우드 홀의 시각장애인 사역

(1)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역사와 문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여전히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의 삶과 복지에 반영되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항상 요구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서구 문화가 접목되기 전까지는 조선왕조 이전의 불교 문화와 조선왕조의 유교 문화, 그리고 전통적 무교(巫敎, shamanism)적인 문화가 융합되어 장애를 인식해 왔다. 조선왕조에서 억불숭유 정책을 펼쳤지만, 불교가 여전히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느 한 가지 문화가 대중들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혼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미국인 선교사이자 조선 역사를 저술한 문필가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는 한국인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다. “대개 한국인은 사회에서는 공자를 추종하고, 철학에서는 불교를 따르고, 급하면 정령 숭배자가 된다.”(캐서린 안, 김성웅 역, 2012: 26 재인용)

무교(巫敎)는 불교, 유교, 도교 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전래된 오래된 종교이다.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은 유교, 불교, 도교와 혼합되어 다양성이 심화되었다. 한국의 샤머니즘은 인간의 불행을 악령이나 악인에게 돌리면서 주술을 통하여 악령을 추방하는 의식을 중요시 한다(전호진, 1992:). 장애 역시 악령이나 악인에 의해 생겼다고 보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한다. 따라서 장애를 귀신의 저주로 이해하였고, 장애인을 저주 받은 사람으로 이해하였다.

불교에 있어서 장애인의 발생원인은 윤회와 업설(業說)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삶이 지금의 한 생으로 모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길게 연결되어지는 긴 흐름이라고 보고, 윤회라는 것은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산다는 것을 말한다. 업은 윤회의 근본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초래하고, 인간의 모든 것은 업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업의 결과에 있어서 선업(善業)은 선과(善果)를 악업(惡業)은 악과(惡果)를 낳게 된다고 말한다(윤태임, 1998: 28). 즉 불교 문화권 아래에서 현재의 장애는 과거의 악업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과거에 악업을 많이 행한 사람으로 낙인 되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천명(天命)에 의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태어나며, 천(天)이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

로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타고난 팔자로, 하늘의 뜻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인다(윤태임, 1998: 45). 그러므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이 감수하고 극복해야 할 천명이다. 천명에 의하여 장애인인도 태어나면서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신분이 높은 집안의 장애인은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천한 신분의 장애인은 어느 하층민처럼 구걸로 연명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유교에서는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생활 중에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불효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다.

子曰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니 不敢毀傷이 孝之始也요.[孝經, 開宗明義 章第1]

불교의 자비(慈悲)사상⁷⁾과 유교의 인(仁)사상⁸⁾이 융합하여 장애인에게 보호와 동정의 차원에서 구휼 제도를 펼친 것도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 구휼의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 아래 있을 때, 로제타 홀이 조선에 와서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paradigm)을 제공하였다. 닥터 셔우드 홀은 어머니 로제타 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기록한다.

어머니는 맹인 소녀들도 정상적인 소녀들과 함께 배워야 하며 여러 운동이나 놀이에도 똑같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셔우드 홀, 2003: 203).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은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화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과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함께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한다. 사회통합이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똑같이 자원을 이용하며,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 접촉할 기회,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종호 외, 2011: 90-92).

닥터 셔우드 홀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로제타 홀은 당시 동정과 구휼의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천대 받고 무시당하는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정상화’하고 ‘사회통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선교현장에서 실천하였다.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 오봉래를 교육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맹인은 쓸모없다는 세간의 잘못된 편견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도가 되리라고 믿었다(셔우드 홀, 2003: 159).

로제타 홀은 자신의 실천이 당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실제로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복래가 글도 배우고 행복해진 것을 본 병원 환자들은 어머니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맹인 소녀

7) 불교는 자비사상을 근간으로 하는데, 자비의 자(慈)는 백성들에게 낙(樂)을 주는 것을 말하고 비(悲)는 백성의 고통을 더는 것을 말한다.

8) 공자는 그의 철학의 근본 원리를 인으로 생각하였다. 인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것은 곧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인은 사랑이라고 정의 내려도 될 것이다.

들도 받아달라고 청했다(서우드 홀, 2003: 159).

이러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결과로 로제타 홀은 평양에서 시각장애인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2) 시각장애인 직업개발

조선 정부는 시각장애인들이 점복·독경·악기연주 같은 직업을 갖고 스스로 먹고 살도록 유도하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까지 시각장애인들은 점복가, 독경가, 악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다.

조선 시대에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가진 직업은 점치는 것이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점복을 하고, 겸하여 독경을 하기도 했다. 대개 그들은 산통(算筒)과 점대(占帶)를 휴대하고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신수들 보시오’ 하고 외쳤으며, 점을 쳐주고 양식을 받았다(신재효, 1978: 71-73; 이사벨라 버나드 비숍, 이인화 역 1994: 462-463).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계층을 불문하고 점복이 널리 성행했기 때문에 이름난 맹인 점복가가 많이 나왔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73). 그러나 점복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천대 받기 시작하였다.

대중을 인도하는 도는 공(公)과 신(信)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전법(田法)의 조문에 이르기를 ‘공사 천구와 무격·창기와 공상·승니와 점복하는 맹인은 수전(受田)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 당초의 뜻을 생각하여 보면 백성에게 믿음을 보이고 그 문란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으니, 그 뜻이 지극합니다(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6월 1일; 정창권, 2011: 229 재인용).

조선 전기에 독경하는 맹인, 곧 맹인 독경자는 모두 삭발을 했으므로 맹승(盲僧)이라 불렀고, 혹은 「용재총화」의 기록처럼 선사(禪師)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정초에 복을 빌어주고 집을 짓거나 수선하는 일에 참여하여 재앙을 제거해 주었다(정창권, 2011: 174). 맹인 독경자들은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일 외에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하였다. 특히 조선조 서민들은 병이 나면 의약을 구하지 않고 먼저 맹인이나 무당을 찾아갔다. 그래서 ‘양반의 병에 소경이나 무당에게 물으러 가면 반드시 죽고, 상사람의 병에 의약을 구하러 가면 병자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속담이 나돌기도 하였다(이능화, 1981: 265-267).

조선 전기 맹인 독경자는 명통시(明通寺)라는 절에 집회소를 두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한 번씩 모여 경문을 외며 축수를 하였다. 명통시는 조선 정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립한 것이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 맹인의 독경 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영조 21년에 완전히 철폐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77-178).

신이 듣기에 궁중에서 소경 4, 5명을 불러 송경(송경)하는데 하루 낮밤을 지냈다고 하는데, 전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중략) 지금부터라도 모든 무익한 일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금지함이 마땅합니다(숙종실록 35권, 숙종 27년 7월 5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94-95 재인용).

영조 21년에 맹제(盲祭)·무제(巫祭)·독경제(讀經祭) 등의 이름을 모두 없애버리도록 하였다. 맹인의 기우제나 무녀의 기우제 및 이어(移御)할 때의 맹인 독경제 등이 옛날엔 그 이름이 있었으나 폐지한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러나 봉상시의 제안에 실려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모두 없애버리도록 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88).

초기 조선 정부는 관현맹인 제도를 실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벼슬과 녹봉을 줌으로써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 주었다. 세종 초년에는 관현맹이 악공(樂工)·여기(女妓)와 같이 관습도감(慣習都監)에 소속되게 하였다. 관습도감은 세조 12년(1446)에 장악서(掌樂署)로 고쳐졌으며, 중종 초년에 장악원(掌樂院)으로 고쳐졌고, 이 장악원은 고종 21년(1884)에 폐지되었다(김승국 2003: 20).

호조에게 아뢰기를 “관현악을 연주하는 맹인들에게도 악공의 예에 따라 춘추로 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각각 콩 한 섬을 더 주도록 명하였다(세종실록 13년 5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80 재인용).

그러나 관현맹인은 그 수가 한정되어 일부 시각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 그 외 직업을 갖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은 구걸로 연명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남자 소경은 혹 점복으로 살아가지만 여자 소경은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중종실록 14년 3월 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81 재인용)

로제타 홀이 조선에 도착했을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은 점복가·독경가·악기연주자로서 조선 초기 만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여성 시각장애인의 경우 생계를 위한 구걸 외에는 마땅한 직업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로제타 홀의 요청에 의해 1908년 한국에 온 록웰(Nathan Rockwell)은 전국을 순회하며 맹인의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여성 맹인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과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자 없이 그대로 집구석에 방치하여 교육적으로나 장래상으로 말이 아니라는 점이었다(장병욱, 1979: 170-171). 록웰이 본 당시 한국 여성 시각장애인들은 교육이 없었으니 장래의 직업이나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로제타 홀에 의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로제타 홀은 여성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로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인쇄술, 뜨개질, 재봉술, 타자, 수선법, 요리, 세탁, 편물, 다리미질, 바구니 제작, 돛자리와 짚신 삼기 등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며 취업의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맹학교 조수, 점자제작, 사진관 보조 등의 일에 종사할 수 있게 추천하였다(김홍권, 2002: 655).

평양여학교가 설립된 후에는 맹인반이 추가되었다. 필요한 것은 초보 학생을 위한 특수 교사를 양성하여 일반 교사들과 같은 교사진에 넣는 일이었다. 결국 봉래는 특수 교사가 되어 맹인들을 가르쳤다(셔우드 홀, 2003: 203).

로제타 홀이 조선에서 처음 만나 교육했던 시각장애인 오봉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특수교

사가 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교사의 배출이 절실함을 느낀 로제타 홀은, 1900년경부터 교생의 자격으로 맹인반의 보조교사로 돕고 있던 봉래를 총독부 장학금으로 조배너, 최신애와 함께 일본 동경에 있는 일본 동경맹학교에 유학하도록 주선하였다(1915년). 오봉래는 1917년 동경맹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돌아와 평양맹아학교 정식 교사로 활약했다(정창권 외, 2014: 300).

또, 로제타 홀에게서 배운 김성실이라는 시각장애 학생은 이화여전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평양맹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통역사로도 활동하였다.⁹⁾

로제타 홀은 교육과 함께 직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고, 직접 취업을 주선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로제타 홀은 점복가·독경가·악기연주자로 오랫동안 한정되어 있던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직업유형에 새로운 직업유형을 개발하는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직업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이다. 직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된다는 공동체성과 존엄성을 부여하기도 한다(이선우, 2009: 281). 그러므로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 인간의 존엄성¹⁰⁾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시각장애인 특수교육

장애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은 중요하다. 또한 교육은 사회참여의 길을 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은 점복가·독경가·악기연주자로서의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에 한정되었다. 그것도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허락되어야만 가능 했다.

우리나라에 서구의 특수교육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95년 간행된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을 통해서이다. 이 책에서 유길준은 맹인교육의 점자원리와 사용법, 그리고 농인 교육의 언어지도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김병하, 1986: 8).

우리나라에 서구의 특수교육이 처음 시작 된 것은 1894년 로제타 홀이 오봉래라는 맹여아에게 점자지도를 시작함에 기원을 둔다. 당시에 로제타 홀이 맹소녀 봉래에게 점자지도를 한 구체적 사실은 「Korea Mission Field(1908)」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1894년 이른 봄부터 한 교인의 딸인 맹여아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그 해에 그녀의 남편이 사망하자 미국으로 귀국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홀 여사는 뉴욕에 있는 맹인원(Institution for the Blind)을 방문하여 점자체제를 다시 배웠다. 1897년 한국에 다시 돌아오자, 그녀는 이 점자체제를 한글 철자와 그 음절에 맞춰 적용하여 기도서와 십계명의 일부를 점역하여 1894년에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 여아에게 가르쳐 주었다(백낙준, 1998: 338-339 재인용).

9) 중외일보 1930년 3월 21일, 22일 김성실 인터뷰 기사 참조, 김성실은 잡지 「별건곤」에 ‘맹인이 본 세상’이란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헬렌 켈러 방한시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주윤정, op. cit., pp. 151-152 참조

10) 존엄성: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주고 있는 「Korea Mission Field」의 기사에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수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로제타 홀임이 틀림없고, 그 시작 시기는 1894년 이른 봄이었음이 확인된다(김병하, 1986: 13). 로제타 홀은 당시 일기에 “나는 봉래를 가르치기 위해 조선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을 찍어 일종의 점자를 고안했다 봉래는 아주 열심히데다가 총명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셔우드 홀, 2003: 159)고 기록하고 있다.

로제타 홀은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였지만,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조선의 맹인교육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여, 뉴욕에 있는 맹인원(Institution for the Blind)을 방문하여 루이 브레이유(Louis Braille)가 개발한 점자와 윌리엄 웨이트(William B. Wait)가 개발한 ‘뉴욕 포인트’란 점자를 배우고 비교하였다.

1897년 11월 10일 한국에 돌아 온 로제타 홀은 서울의 보구여관(保求女館)에서 얼마간 일을 돕다가, 1898년 5월부터는 평양의 홀 기념병원으로 옮겨, 곧 봉래에게 뉴욕식 한글 점자를 적용하여 읽고 쓰기를 지도함으로써 1894년 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맹교육이 다시 시작되었다. 로제타 홀은 서울의 보구여관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평양에 가서 맹인을 교육 할 준비를 계속하였다.

조선에 돌아온 그해 겨울 어머니는 여가를 이용해 조선어 교재를 점자법으로 복사했다. 교재는 조선말의 알파벳인 가, 나, 다, 라와 조지 히버 존즈 여사가 지은 ‘조선어 기도서’, 그리고 십계명이었다. 어머니는 카드 보드와 비슷하게 뾰뾰한 조선 기름 종이에 바늘로 찍어 점자를 만들었다(셔우드 홀, 2003: 201).

로제타 홀은 한국에 다시 돌아오자 곧 1897년 겨울에 뉴욕 포인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4점으로 된 한글 점자(장림 보느 글꼴)를 창안하여, 이것으로 성경의 일부와 십계명을 점역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로제타 홀에 의해 모국어의 어법에 따른 한글 점자를 처음 가지게 되었으며, 이 한글 점자(평양식 점자라고도 함)는 박두성 선생에 의해 브레이유식 한글 점자(즉 훈맹정음)가 창안·발표된 1926년까지(평양에서는 그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해서) 맹인들 간에 두루 통용되어 왔던 것이다. 박두성 선생의 유고 “훈맹정음의 유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899년경부터 평양에서 미국인 홀 부인이 여자 맹인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니, 한국에서 맹인에게 글자를 쓰게 한 것은 이것이 시초였다(김병하, 1986: 16-17 재인용).

로제타 홀에 의해 개인 교수의 형태로 최초로 맹어아에게 점자 지도가 시도된 것은 1894년이며, 보다 체계적으로 한글 점자에 의한 읽고 쓰기가 시작된 것은 1898년이다.

로제타 홀의 맹인 교육이 소문이 나서 맹인 소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홀 여사의 맹인교육은 맹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 결국 찾아오는 맹인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첫 번째 맹인 학교가 생겼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는 「근대 한국교육의 연표」에서 로제타 홀에 의해 1898년 평양에서 맹아동을 위한 학교가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 사실은 「Korea Mission Field」에서도 언급되고 있다(김병하, 1986: 18).

또 정진여학교에 맹어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통합교육 형태의 학교 교육으로 특수교육이 시작된 것은 1900년이다. 로제타 홀의 일기(1900년 11월 27일자)에는 “나는 맹인을 위한 일을 더 진전

시켜야겠다. 정진여학교의 맹학급(in this department of our day school)에는 이제 4명의 훌륭한 맹소녀들이 있다. 그러나 새로 맹여학생들을 지도할 교생(the pupil-teather)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셔우드 홀, 2003: 200)고 적고 있다. 이 학급은 통합교육의 형태를 취한 시간제 특수학급 방식으로서 매우 진보적인 교육이었다.

1903년 로제타 홀은 조선감리회 연례회의에서 정식으로 평양 맹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06년 맹여아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에디스 마거레트 어린이 병동이 화재로 소실되어, 1907년 정진여학교 기숙사를 건물로 이전하였다. 당시에 정진학교 내에 맹여아를 위한 특별교실을 마련하는 데에 뉴욕의 크로커(Clocke) 부인이 특별히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로제타 홀은 이 특수학급을 “맹여아를 위한 크로커 학급”(The Clocke Class for Blind Girls)이라 불렀다(R.S. Hall, 1906: 174-176).

한편 1904년 평양에서 장로교 선교사 모펫(S. Moffett) 여사¹¹⁾에 의하여 별도로 남자 맹인학교가 설립·운영되었는데, 1915년에 로제타 홀이 이를 합하여 일제로부터 평양 맹아학교로 설립인가 받았다(최영: 2005: 637).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로제타 홀은 의료선교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맹인 교육을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원을 확보하여 맹인 교육의 기반을 닦았다.

로제타 홀이 확보한 자원에는 인적자원도 포함된다. 로제타 홀은 맹인 교육을 더 확장하기 원했을 뿐 아니라, 맹인 교육을 위한 맹인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품고 오봉래를 가르쳐 실현하였다. 1906년에 로빈스(H.P. Robbins)¹²⁾와 김 배시(Bessie), 그리고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00년에 귀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를 교사로 확보하였으며, 1908년에는 전문적 자질을 구비한 특수교육 교사 록웰(Nathan L. Rockwell) 등을 교사로 확보하였다(김병하, 1986: 23-25).

로제타 홀은 평양맹학교에서 제1회 동양맹아교육관계자대회(1914. 8. 11 ~ 8. 15)를 개최해 조선, 중국, 만주, 일본 등의 맹아교육관계자를 평양에 초청해 맹아교육사업을 보다 전문화시키고자 연구보고를 나누었다(주운정, 2008: 151).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개척자이다. 직접 한글 점자를 만들고, 교재를 제작하고, 가르쳤다. 시각장애인 학생을 모으고, 특수학급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교장이 되어 교사를 확보하였으며, 학교의 재정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시각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 시각장애 특수교육의 개척자이며, 시각장애인의 새벽을 깨우는 효시(曉示)가 되었다.

Ⅲ. 결 론

로제타 셔우드 홀은 한국의 초창기 개신교인들이 ‘평양 오마니’¹³⁾라고 불렀던 미국 여성이다. 그녀는

11) 모펫 여사의 남편은 사무엘 모펫(Samuel Austin Moffet, 한국이름 마포삼열(馬布三悅), 1864-1939) 선교사이다. 그는 1890년 한국에서 와서 1901년 평양신학교(현 충신대학교 전신)을 설립하였다.
 12) 로빈스는 로제타 홀의 뒤를 이어 평양맹아학교의 제2대(1925년-1935년) 교장으로 봉직했다.
 13) 로제타 홀이 한국에 온 지 25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사람들은 그를 ‘평양 오마니’라고

의료선교사로 1890년 한국에 와서, 함께 동역하던 남편이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천하고, 딸 에디스 마거리트가 갖 네 살에 소천하고, 미국 유학을 지원하여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돌아온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에스터가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 만에 폐결핵으로 소천하고, 시각장애인 특수교육 전문가로 합류한 록웰이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소천하는 등 가족과 동역자를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은퇴로 물러날 때까지 44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로제타 홀이 사역했던 시기 조선의 의료 복지 상황은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로제타 홀은 의료선교사로서 의료사역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던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즉 ‘지극히 작은 자’¹⁴⁾를 위한 사역에 매진하였다. 로제타 홀의 장애인 사역 중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많은 수고를 감당한 사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역이었다.

로제타 홀이 시각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은 일부 점술가·독경가·악사를 제외하고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구걸하거나 방치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을 천대하고 무시하던 당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그녀는 시각장애인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시각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기여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로제타 홀은 먼저 시각장애인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프랑스와 미국에서 개발된 여러 점자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를 개발하였으며, 점자로 된 교수자료를 직접 제작하였고,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물론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도 스스로 확보하였다.

로제타 홀에 의해 시각장애인 특수교육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직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의 직업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접목하였을 뿐아니라 졸업생들의 취업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졸업생 중에는 특수교사, 점역사, 통역사, 각종 수공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갖는 시각장애인들이 배출되었다.

로제타 홀은 낯선 조선 땅에서 가족과 동료를 먼저 보내는 슬프고 외로운 삶을,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던 조선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하는 외로운 삶으로 승화시켰다. 로제타 홀은 외로웠으나 의로웠던 의료선교사임과 동시에 가르치는 특수교사였으며, 실천하는 복지사였으며,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복지의 선구자·개척자·실천가였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조선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빛을 던져 준 ‘세상의 빛’¹⁵⁾이었다.

서울프레스의 사장을 지낸 야마가타 이소오(山縣五十雄)는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인의 존경을 받는 것에 빗대어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영주하며, 조선인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일본인들의 태도와 비교된다. 외국인 선교사의 경우, 대를 이어 선교사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태도로 명리(名利)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위하여 자기 헌신적이다. 대표적인 선교사로는 부인병원을 설립하고 맹인교육을 처음 실시한 로제타 홀이 있는데, 이런 활동은 미국의 유명 잡지에도 수록되어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이런 선교사의 헌신적 활동에 대해 조선에 와있는 내지인들은

불렀다.(「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캐서린 안, 김성용 역, pp. 289-290.)

14)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15)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중략)”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주윤정, 2008: 158-159). 일본인의 눈에 비친 로제타 홀은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선교사들 중에 대표적인 선교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홀의 업적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과소평가 되어 왔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학술적으로든 대중적으로든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한국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부 남성 선교사들의 사역에만 유독 관심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여성 선교사들이 쏟은 노력과 헌신은 아직도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다(캐서린 안, 2012: 16).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에서는 로제타 홀이 기독교 선교사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종교적이라는 편견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마치며, 앞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로제타 홀의 사역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녀의 업적이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① 단행본

- 김승국 (2003). 『특수교육의 발전과 통합교육의 추진』. 서울: 특수교육.
백낙준 (1998). 『한국개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신재효 (1978). 『신재효 판소리사설집』. 서울: 민중서관.
이능화(1981). 『조선도교사』. 서울: 보성문화사.
이선우(2009).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공저 (2011).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장병욱(1979). 『한국감리교여성사』. 서울: 성광문화사.
전호진(1992).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 전략』.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정창권 (2011). 『역사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글항아리.
정창권, 윤종선, 방귀희, 김언지 공저 (2014). 『한국장애인사』. 서울: 도서출판 숲대.

② 번역서

- Isabella Bird Bishop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이인화 역 (1994). 『한국과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Katherine H. Lee Ahn. 김성웅 역 (2012).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서울: 포이에마.
Sherwood Hall.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김동열 역 (2003). 『닥터홀의 조선회상』, 서울: 좋은씨앗.

③ 정기간행물

- 김병하 (1986).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女史의 의한 韓國 特殊教育의 成立 史考.’ 『특수교육학회지』. 7. 5-27.
김홍권 (2002). ‘의료선교사 로제타 홀의 조선사랑.’ 『신동아』. 510. 645.
주윤정 (2008). ‘자선과 자혜의 경합: 식민지기 맹인 사회사업과 타자화 과정.’ 『사회와 역사』. 80. 141-174.
탁지일 (2011).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1).
Rosetta S. Hall (1906). “*The Clocke Class for Blind Girls*”. 『The Korea Mission Field』. II (9). 174-176.

④ 편저

- 한국재활재단 편 (1996).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사』. 서울: 양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5).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파주: 돌베개.

한국신학연구소 편 (2005).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⑤ 석·박사 학위논문

김정민 (2009). “로제타 셔우드 홀의 선교사역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백윤희 (1986). “기독교의 전래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신동수 (2009). “한국 교회의 장애인복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신학대학원.

윤태임 (1998). “불교와 유교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